



묵직하고 역동적인 신구 조화 정통 사극에 세련미를 더하다

여말선초, 혼란의 시대를 신구(新舊) 조화를 통해 정통 사극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도 세련된 감각으로 그려냈다. 조선 건국을 배경으로 한 JTBC 금토극 '나의 나라'가 근래 쏟아진 판타지 사극 속에서 스타일리시한 무게감을 뽐내며 시청률 5%(닐스코리아 유료가구) 돌파를 눈앞에 뒀다.

'나의 나라'는 사극의 가장 오래된 레퍼토리인 조선 태조와 태종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다. 그러면서도 과거 작품들과 달리 젊은 피들을 이야기 중심으로 내세웠다.

고려 말기 이성계(훗날 조선 태조) 휘하로 북방을 호령한 장수 서겸의 아들 휘(양세종 분), 사복시정 남전의 차남이자 서얼인 남선호(우도환), 기생의 딸로 총명하고 뱀심까지 두드러진 한희재(설현)가 그 주인공이다.

이 같은 장치는 지나치게 익숙한 여말선초 이야기를 새로운 시선에서 보도록 돕는다. 올해 SBS TV가 선보인 '녹두꽃'이 교과서에도 나오는 동학농민운동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이복형제를 조명하며 새로운 이야기로 재탄생시킨 것과 비슷한 전략이다.

서휘와 남선호 역시 혼돈 속에서 같은 듯 다른 길을 걸으며 끊임없이 만난다. 요동 전장에 던져진 휘는 끝까지 살아남았고, 휘의 무리를 죽이기 위해 나선 선호는 휘 대신 칼을 맞는다.

어렵게 조선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태조 이성계(김영철)와 이방원(장혁)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립 전선이 펼쳐진 상황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목숨을 건 게임을 시작했다.



김영철·장혁 무게중심, 양세종·우도환 젊은피 '시너지' 선곡은 대본·섬세한 연출·OST 매력 더해 시청률 상승

2017년 '슈퍼 루키'로 함께 떠올라 한창 입지 다지기 중인 양세종과 우도환은 이번 작품에서 기대 이상의 호흡을 보여준다. 외모도 연기 톤도, 맑은 캐릭터 성격마저도 극과 극인 두 사람은 팔팔 뛰는 활어처럼 서로 부딪히면서도 뒤섞인다. 작품마다 연기력 논란이 있는 설현도 '나의 나라'에서는 두 남배우 사이에서 안정된 호흡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녹두꽃'에서 녹두장군 전봉준을 연기한 최무성이 있었듯, '나의

나라'에는 김영철과 장혁, 안내상, 박예진이 무게중심을 짊어지며 젊은 배우들이 마음껏 뛰어놀 장을 마련해준다. 갈수록 비중이 커지면서도 후배들이 부담 없이 연기할 수 있도록 제작발표회 등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은 것도 그러한 의지로 보인다.

중견 배우끼리 맞붙는 장면에서는 과거 대하사극을 다시 보는 듯한, 반가운 묵직한 느낌을 준다. 이성계와 이방원, 부자의 대립과 이방원과 신덕왕후 강

씨(박예진) 간 기 싸움이 대표적이다. 반면, 중견 배우들과 청춘스타들이 호흡을 나누는 모습은 신선한 에너지를 내뿜는다. 초반 휘가 사냥터에서 이성계 눈에 들어 무과 시험에 도전하는 스토리나, 최근 선호가 이방원과 눈치 게임을 벌이는 과정이 그랬다.

초반 각 인물의 권력욕과 파위게임이 돋보이는 대본, 그리고 섬세한 연출 역시 잘 어우러진 편으로 평가된다.

제1차 왕자의 난이 극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반부로 갈수록 인물 간 얽힌 감정선을 연출자가 어떻게 섬세하게 풀어낼지가 '릿심'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초반부는 인간의 욕망을 선 굵게 그려낸 작가의 기획의도가 돋보였다.

강악이 조화를 이룬 극에 더해 아울러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의 새로운 시도 역시 돋보인다. '나의 나라' 음악은 '추노'의 최철호 음악감독이 맡았다.

드라마 관계자는 22일 "나의 나라"에서는 국악은 물론 EDM, 엔리코 모리코네 스타일로 선율이 강조되는 느낌의 곡, '왕좌의 게임'이 연상될 정도로 스케일 큰 풀(full) 오케스트레이션, 아이리시 스타일, '아모르미오'처럼 유머와 해학이 넘치는 시도 등 다양한 곡을 만날 수 있다"며 "시공간을 초월한 음악에 보컬 특징을 극대화하면서도 극 감정을 살리는 삽입곡들도 이 작품의 큰 무기"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협정 분위기도 매우 좋다. 특히 중견 배우들이 젊은 배우들을 배려해 정통사극이면서도 작품에 젊은 느낌이 나게 배려해준다"고 덧붙혔다. /연합뉴스

'닭학다식 전문록' 예능 '치킨로드' 즐겨요

올리브tv 매주 화요일 방송

스타 셰프와 연예인 미식가가 새로운 치킨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 해외 여행을 떠난다.

지난 15일 방송을 시작한 올리브 예능 '치킨로드'는 각각 인도네시아(김풍-김재우), 프랑스(오세득-정재형), 미국(이원일-강한나), 페루(오스틴 강-권혁수)로 떠난 4개 팀이 다채로운 세계의 닭 요리를 소개하고 요리법을 개발하는 '육방'이다.

가수 겸 작곡가 정재형은 22일 영등포구 여의도 컨벤션호텔에서 열린 '치킨로드' 기자간담회에서 "닭에 대한 관심을 다른 레시피로 즐겨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신의 이름을 딴 요리 프로그램 '정재형의 프랑스 가정식'을 진행하기도 한 그는 "프랑스와인과 치즈를 극대화한 치킨 요리를 개발했다"며 "힘든 여정이었지만 즐겁게 찍어왔다"고 말했다.

페루로 떠난 권혁수는 "치킨을 원 없이 준다고 해서 출연하게 됐다"면서 "고산병을 치킨으로 이겨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지난 1회에서는 출연진이 새 레시피 개



강한나

발을 위해 여정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김풍과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개그맨 김재우는 "자카르타만 나가도 '아직 치킨의 100분의 1도 못봤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치킨로드"엔 말도 안 되는 형태의 치킨들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치킨 쪽으로 아직 애송이었다"고 감탄했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50분 방송. /연합뉴스

동방신기, 일본 오리콘 주간 앨범차트 8회 1위

그룹 동방신기(유노윤호, 최강창민)가 일본 데뷔 15주년 기념 앨범으로 8번째 오리콘 주간차트 1위에 올랐다.

22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 16일 출시한 일본 15주년 앨범 '엑스브이'(XV)는 발매 당일부터 5일 연속 오리콘 일간 앨범 차트 1위에 오른 데 이어 주간 앨범 차트에서도 정상 을 차지했다.

이로써 동방신기는 일본에서 해외 아티스트 사상 최초로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8회 1위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역대 해외 아티스트로는 최다 1위다.

오리콘은 22일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동방신기, 일본 데뷔 15주년 앨범 통산 여덟 작품째 1위'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오리콘은 "동방신기의 최신 앨범 '엑스브이'가 발매 첫주 15만 5000장으로 1위를 차지했다"며 "해외 아티스트 앨범 통산 1위 작품수 역대 단독 1위가 됐다"고 소개했다.

이번 앨범에는 '길티'(Guilty)를 비롯해 신곡 12곡과 '젤러스'(Jealous), '핫 핫 핫'(Hot Hot Hot) 등 싱글 발표곡까지 15곡이 수록됐다. 국내에서도 23일 낮 12시 음악사이트에 공개된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어쩌다 발견한 하루(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동백꽃 필 무렵(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헬로카봇 유니버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어쩌다 발견한 하루(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테라스페셜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별의별 중계 50 KBS 재난방송센터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30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남북의 창 50 2019 전국 초등 축구 리그 (대전 중앙초·대전 P&S FC)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생생정보	20 벅스붓 50 빠샤 메카드S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모두 다 쿵따리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반지의 비밀일기 2 15 쏠! 내 친구는 빅파이브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5 좌충우돌 만국 유랑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2019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2차전(키움·두산)
7	00 KBS 뉴스 7 40 미니디Q	50 태양의 계절	30 MBC 뉴스데스크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어쩌다 발견한 하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더 라이브	00 동백꽃 필 무렵	05 실화탐사대	00 SBS 8 뉴스 30 KBC 8 뉴스 5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1	35 UHD 송터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썸바이벌 1+1	05 라디오스타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10 나이트라인 40 시크릿 부티크(재)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극한직업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크프라이	19:00 스파이더맨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55 EBS 초대석	19:30 생방송 판다다
07:45 페파 피그	14:45 몰랑	20:00 머털도사
08:00 당동당 유치원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30 아기 동물 귀여워(재)
08:30 띠띠뽀 띠띠뽀	15:10 로보카 폴리(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푸드 트립 스페인-올라 맛있는 인생〉
09:00 출동! 슈퍼왕스	15:55 출동! 슈퍼왕스(재)	21:30 한국기행
09:15 마사와 곰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여행책에 없는 강원도 3부
09:30 원더볼즈	16:25 마사와 곰(재)	은빛 역사 일렁이면〉
09:40 아기 동물 귀여워	16:40 당동당 유치원(재)	21:50 EBS 다크프라이
10:00 지식의 기쁨	17:00 EBS 뉴스	22:45 극한직업
10:30 한-OECD 국제교육포럼스 개막식	17:20 그림을 그려요	23:35 EBS 초대석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파 피그(재)	24:25 지식의 기쁨(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3일 (음 9월 25일 쐬巳)	☎ 010-9790-8237
36년생 솜주초 오르는 기세의 운로이다. 48년생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노파심을 떨쳐 버려도 되느니라. 60년생 초여름의 소나기와 같은 가뭄이 보인다. 72년생 원동력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잘 다뤄야 한다. 84년생 치열함 속에는 후유증도 따르게 되어 있다. 96년생 지나치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리라. 행운의 숫자 : 11, 82	30년생 길경이 보인다. 42년생 집착하지 말라. 54년생 주객이 전도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겠다. 66년생 외형보다는 실속이 중요하다. 78년생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여 몹시 당황할 수 있는 날이다. 90년생 긍정적인 마인드가 발전을 이끌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8, 17	
37년생 만남은 있으나 탐색전에 불과한 구도이니라. 49년생 냉철하게 뒤돌아보라. 61년생 의외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니 기대해도 된다. 73년생 총시가 황금과 같으니 시간을 아껴 쓰라. 85년생 한파가 도사리고 있다. 97년생 다양한 변수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52, 96	31년생 이익은 생기지만 소량에 불과하니 크게 기대하지는 말라. 43년생 귀중한 것이니 잘 간수해야겠다. 55년생 발버둥 치면서 어렵사리 위기를 모면하는 국량이 나타나 있다. 67년생 가까운 이가 괴로움을 안겨다 주리라. 79년생 관련 시키는 요인이 발생하는 판국이다. 91년생 원민 턱에 나발 붙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26, 91	
38년생 기다렸다는 듯이 때때추어 나타나리라. 50년생 번영의 순풍과 함께하고 있다. 62년생 별난 것을 접하게 될 것이다. 74년생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86년생 오매불망하며 학수고대하여 왔던 바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는 날이다. 98년생 임시 통합의 형태에서는 위험하므로 절대로 아니 된다. 행운의 숫자 : 43, 19	32년생 조절의 시기를 놓친다면 무리가 따를 것이니라. 44년생 전혀 새로운 분야를 접하게 될 것이다. 56년생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라. 68년생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므로 개의치 말라. 80년생 꿈꿔 왔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다. 92년생 주의를 다 하지 않으면 흉사가 벌어지겠다. 행운의 숫자 : 01, 57	
39년생 처음에는 불리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리라. 51년생 드디어 희망적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니라. 63년생 인식하였다면 즉시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75년생 낙관적으로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 87년생 대수롭지 않다. 99년생 조짐이 보이면 진행 방향을 수정해도 좋다. 행운의 숫자 : 96, 05	33년생 놔두면 다 쓰일 데가 있을 것이다. 45년생 형식이 엄매이지 말고 내용에 충실 하라. 57년생 어류가 사라지면 밝은 햇살이 가까이 다가온다. 69년생 끝나는 마당에 문제가 붙을 수도 있다. 81년생 반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울 수도 있다. 93년생 결정적인 계기가 조성되는 면모이니라. 행운의 숫자 : 15, 09	
40년생 지켜보고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52년생 대안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국세에 놓여 있다. 64년생 대양은 비에 젖지 않는 법이다. 76년생 기존의 상황에 크게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가 보인다. 88년생 급할수록 우회하는 것이 복잡함을 피하는 길이다. 00년생 갖추고 있어야 기회를 수용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86, 31	34년생 이것저것 재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때다. 46년생 일단 마무리 짓는 것이 나을 것이다. 58년생 의식하고 있다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 70년생 옛 것으로부터 길함을 배울 수 있다. 82년생 처음에 마음먹었던 바를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판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94년생 훗날을 도모함이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니라. 행운의 숫자 : 27, 63	
41년생 작은 것을 아끼려다가 매우 소중함을 잃을 수 있다. 53년생 행위자의 정확도가 관련이 될 것이다. 65년생 시작은 좋지만 원활한 마무리가 아쉽다. 77년생 동기가 절실해야 일처다. 89년생 진면모를 파악하게 되리라. 01년생 드디어 종결짓게 된다. 행운의 숫자 : 88, 92	35년생 팔 심에 팔고 나고 흥 심은 데 흥 난다. 47년생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처하였을 때 성사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59년생 길일이나 복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71년생 돌발적인 변수까지 감안하지 않으면 다 된 마당에 파탄날 수도 있다. 83년생 비에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이다. 95년생 생애몰이 보이니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22, 98	